

개신교인 더 많다' 잘못

통계청 전수조사 '불교우위' 밝혀
 갤럽도 표본 수치 부정확성 인정

표본조사에 대한 오해가 '개신교도 20% 최대' '우리나라 최대종교는 개신교' '개신교도 한국서 최대 분포'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았다. 8일과 9일 주요 일간지들은 갤럽조사연구소의 '제3차 한국인의 종교실태와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개신교인 수에서 개신교인이 불교인보다 많았다고 보도했다. 갤럽은 '한국인의 종교실태' 보도자료에서 '97년 9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중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스스로 종교를 믿고 있다고 응답한 기준)은 46.9%였으며, 종교별로는 개신교 20.3%, 불교 18.3%, 천주교 7.4%, 기타 0.9% 순으로, 개신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교인 89년에는 20.9%였으나, 97년에 18.3%로 감소한 감소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신교인 수 개신교인이 불교인 앞섰'이라는 소제목까지 붙인 갤럽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게 통계청과 통계조사자들의 지적이다. 통계청 통계학과 열근근 교수는 95년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 나타난 개신교 분포(불교 23.1%, 개신교 19.8%, 천주교 6.7%)와 갤럽의 조사는 큰 차이가 난다며 "전수(全數)조사가 표본조사보다 훨씬 정확하므로 갤럽의 종교인 수는 신뢰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비교할 성질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갤럽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불교인구의 한차례 감소를 근거로 감소세를 나타냈다는 것은 무리한 결



"자비의 쌀 모음시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회장 진관·석달)는 11일 조계사문화교육관 본 사무실 앞에서 '실직자 기쁨을 위한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본부' 헌관식을 가졌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헌관식에 이어 금천구 권내 실직자 가정 30세대에 쌀 15kg마를 전달했으며 매일 정례화 힐링방이다. 매일 정례화 '아침을 여는 집' 등에 쌀을 전달한다. <문의: 720-7097>

태고종 총무원 선암사 이전 '유감'

조계종 "원상태로 환원해야" 성명

조계종은 9일 전남지역 5개 본사 주지들과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태고종이 조계종 제20교구본사인 선암사로 총무원을 옮기고 승려대회를 개최한 것은 잘못"이라며 "조속한 시간안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 사찰임은 1970년 4월 9일 태고종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 문화공보부에 종단등록을 신청한 서류중 첨부된 각서와

증헌에서도 확인 된다"며 각서와 증헌의 일부를 예시했다. 즉, 당시 태고종의 종단등록시 증헌에 명기된 사찰은 산유사 사찰의 소유권은 승가암 두곳밖에 없었으므로 선암사등 분류 사찰의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 또 당시 종정인 박대륜스님과 총무원장 박갑득스님들 간부스님들이 연명의 관리권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에 계류중이 있는 소송사건은 본 종단과는 하등의 관계도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된 도시락 하기. 어느 남편 같으면 귀찮다고 푸리 할만도 하지만 굶주리고 있는 복된 어린이들을 위하여 묵묵히 도시락을 들고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든든하기만 하다. 양씨 부부는 한국 JTS(Join Together Society)가 펼치고 있는 '나진·선봉 탁아소·유치원 지매결연 사업'의 후원자다. 올 2월부터 선봉지역 '신화분장탁아소'와 결연. 그곳 34명의 어린이에게 영양식비용 17만원을 매달 후원하고 있다. 양씨 부부가 이 결연사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정토포교원 '장년정토' 회원인 양씨가 남편에게 권유를



하면서 부터다. 지난해 3월부터 복날동포돕기 운동의 후원 회원으로 있던 양씨가 결혼 후, 함께 후원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하자 남편 오씨가 흔쾌히 동의를 해 준 것. "처음에는 맞벌이를 하니 그 정도 금액은 충분히 후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IMF 체제의 영향도 있고, 살림을 꾸려나가기 보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도시락을 갖고 다니기로 결정했지요." 양씨 부부는 두 사람의 한 달 점심 식사비용을 모아 3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남편은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가끔 외식 한 번 하지도 하면 오히려 안 된다고 해요"라며 양씨는 수줍게 웃는다. 매주 수요일 흥제동 정토포교원 법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양씨 부부의 바쁜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꼭 한번 보는 것. "빨리 용일이 돼서 그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전혀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김정은 기자 (jkim@buddhapic.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현대불교 기사실명제-E메일 ID표기
 현대불교신문은 고계 신문 최초로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과 전자우편주소(E메일)를 표기합니다. 금주 178호부터 기사실명제와 ID표기 실시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기사로 독자와 함께 호흡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사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거나 기자에게 직접 의견을 내고 제보할 일이 있으면 E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미래불교의 주인공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캠프를 열었다. 사할과 용인 에버랜드의 자연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길러주는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는 새싹 불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나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불자임이 자랑스럽고 함께 있음이 즐거운 어린이 연합캠프에 많은 어린이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용인 에버랜드·사할에서 2박3일
 ○일 정: 1998년 7월23일(목)~25일(토) (2박3일)
 ○장 소: 용유사 선봉사 목야박물관 와우정사 경수사 백담사
 ○대 상: 초등학교 1~6년 (5명씩 선착순)
 ○특 정: △불교문화유적 답사 △에버랜드서 속식 놀이시설·수영장 캐리비안베이시설 이용 △미디어관 관람 △불교레크리에이션·아침 저녁 예배·참선, 불교교리 공부 △T셔츠 기념품 선물 제공
 ○참가비: 5만원
 ○문의: 현대불교신문 (02)732-1523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 (성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

불교문화 체험기행

6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과 심종석탑(보물 제233호)이 있는 도피안사, 지장도량 심원사, 6.25때 치열했던 격전지 '활원 노동당사'와 '망골' 등을 찾아갑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통일기를 기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6월 '6·25 격전지를 찾아'
 '도피안사, 심원사, 활원 노동당사, 망골'
 ○출 발: 6월 21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회 비: 3만원·초등학생 2만5천원(도시락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헤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성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헤초여행사

- 역사속으로 떠나는 죽음기행 -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 맹란자 저음 -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많은 꿀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경향신문〉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늑기/ 강자 육상산과 광수인. 소강결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5.5.

단체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①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②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에 있습니다. 02)732-8552